

# 看護員の 勤務條件 이대로 좋은가 —— 行政職級問題

간호원의 행정적급급제가 이대로가 좋은가? 의 질문에 “이대로가 좋다” 이면 왜그런지 간호사업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개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와 일맥이 상통하는 것 같아 우선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날로 복잡다양하게 변천하는 환경속에서 적어도 인간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



이 문 자

〈국립의료원 간호과장〉

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질병 또한 일반적으로 단일한 병원균에 의하여 발병되던 것이 현대에와서는 한 지역적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기체문명의 생활에서 유발되는 신경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수반되어야 할 국민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때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원이 Primary Health Care를 맡아야 된다는가 병원에서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Primary Nursing Care 등은 불가피한 간호원들의 할 일이라고 보며, 여기에 따른 간호행정적급도 불가피하게 점차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옛날의 간호행위가 순수한 의사들의 환자진료에 보조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엄연히 간호행위는 전문적이며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하되 환자의 질병치료를 좀더 신속히 하기위하여 진료보조행위를 간호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간호직이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효율적으로 그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려면 간호분야의 전문교육이 우선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간호교육 부문은 급속도로 변천하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도적으로도 간호고등학교에서 대학의 간호학과로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교육수준 또한 큰 발전을 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호원의 근무조건은 어떠한가, 과연 간호행정체제를 간호교육과 더불어 어떤 모양으로 같이 발전하여 왔나를 생각하여 보고싶다.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보아도 타당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받은 이들로하여금 국가

사회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만큼 그들의 역할은 과거에 비교하여 보다 창의적이며 전문적 직업인 다음게 특지적인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행정직급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그 행정제도의 그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행정직급이란 우리가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직무상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간호원의 직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어쓰 간호원의 그 직급은 환자들의 질병진료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Medical member들과 같아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지만 과거의 지시에만 의존하던 간호원의 친로보조 행위가 간호원의 독자적인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른 Medical member들과 서로 평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좀 더 환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한 병동의 수간호원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는 있지만 대개 30~40 Bed를 보유하고 있는 한 병동을 책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간호계획을 하고 이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계속 관찰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10~15명의 전문적 간호원과 수명의 간호보조원, 기타 청소수등 수십명의 직원을 교육지도하여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직급이 주어졌는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직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금 우리 간호원이나 수간호원 혹은 감독, 간호과장의 행정직급은 주어진 업무의 양이나 질, 그리고 그 책임에 같은 비례로 정정되어야 될 줄로 믿는다.

예로서, 국공립병원의 간호과장의 직급과 타임상과 과장의 직급이 차이가 있다는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사회가 간호원에게 기대하는 간호의 전문적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룩되는 때에는 행정직급만이 그 요인이 되느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먼저 간호사업의 효율적인 책임완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본다.

현재에 전보된 간호교육과 실재가 너무 거리가 멀다.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전문지식을 어떻게 임상에서 잘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를 계속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직급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미 오래전에 졸업을 한 기성간호원들의 계속 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전문직업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시대변천에 따른 지식의 흡수와 경험을 토대로 간호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자중심의 간호가 이룩되도록 횡적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행정적 직급도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

